

# ‘이중수급’ 달빛운동교실 광주 복구청 ‘관리 부실’ 도마 위

### 복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서 질타...사후 대책 등 주문 수년간 강사료 초과편성 드러나 ‘행정 편의주의’ 빈축도

〈속보〉건강복구! 달빛운동교실 일부 강사들의 ‘이중수급’ 비위(본보 8월28일 6면 보도)와 관련, 사업 주체인 광주 복구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수년간 강사 수당 예산을 실적급보다 ‘1천만원 이상’ 과다 편성해 온 것으로 확인돼 ‘행정 편의주의’라는 빈축과 함께 복구청이 표방하고 있는 ‘긴축 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는 지적이다.

1일 복구의회 등에 따르면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복구 보건소에 대한 추경 심사 중 ‘건강복구! 달빛운동교실’에서 불거진 ‘이중수급’ 비위가 화두에 올랐다. 김영순 의원은 사업 기간이 겹치기 전 광주시체육회에서만 추진했던 기간에도 이중수급 강사들이 복구의 ‘달빛운동교실’이란 이름을 사용해 활동했

고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광주시체육회에서 파악해야 할 것 같다”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의원은 “달빛운동이라는 복구에서 지은 이름을 팔아먹은 ‘범죄’라며 “어쩌다 보니가 중복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것 같은데, 복구에서 느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양임 위원장은 “행정에서는 관리를 잘못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후 대책 주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에 복구는 연초에 프로그램을 수립

할 때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며 강사에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복구! 달빛운동교실’을 둘러싼 문제점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강사에게 지급돼 온 수당은 시간 당 6만원으로 줄곧 같았으나, 최근 3년 동안 실제 편성된 예산은 시간 당 8만원이었다. 이에 편성액이 지출 예산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 반복돼 왔는데, 지난 2022년 편성액은 3천만원(8만원×125회×3개소)이었으나 지출액은 1천522만원에 그쳤다. 지난해도 편성액은 2천688만원(8만

원×84회×4개소)이었으나 지출액은 1천500만원 뿐이었다. 올해도 편성액은 3천360만원(8만원×84회×5개소)이나, 현재까지 지출액이 1천284만원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1천만원 이상 과다 편성’은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남은 예산은 불용 처리 대신 ‘행사운영비’란 편성목 안에서 사용돼 왔으나, 처음부터 편성액을 실제 지출에 맞게 세웠더라면 주민을 위한 다른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관련, 복구보건소 관계자는 “예산 편성 시 사업별 강사의 등급이 각기 달라 특정한 금액을 예상할 수 없어 평균값 8만원으로 통일하고 있다”며 “지

난 2021년 ‘치매 예방 사업’ 관련 예산안 심사 중 의회로부터 강사료를 통일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사료를 통일해서 편성만 했을 뿐, 지출은 사업별로 달랐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실제 지출액을 예산하기 어려워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첫 추진 이후 한참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한 ‘긴축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안재영 기자



한 여름밤의 음악축제 지난달 31일 광주 동구 ACC 빅도어 스테이지에서 열린 '2024 월드뮤직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흥겨운 공연을 즐기고 있다.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된 월드뮤직페스티벌은 지난달 30일 개막돼 1일까지 펼쳐졌다. /김애리 기자

## 영암 성인 게임장 방화추정 불 5명 사상

### 주말·휴일 광주·전남 인명사고 잇따라...해남선 온열질환 사망자도

영암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 추정 화재로 1명이 죽고 4명이 다치는 등 주말·휴일 광주·전남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성인 게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1시50분께 완전됐다. 화재 현장에선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중국인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 이 불로 2명이 중상을, 또 다른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전날 오후 2시4분께에는 해남군 북일면 한 마을에선 밭일을 하던 A(60대)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A씨가 온열질환에 의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55분께는 광산구 한 저수지 인근 농로를 지나는 B(42)씨가 땅으로 넘어지면서 타고 있던 스쿠터가 불타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맞은 편에서 오던 차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물리를 조작하던 중 높이 차이에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오후 5시22분께 남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C(68)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C씨의 사망과 관련,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황 등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번사 종결할 방침이다. /주성학·영암=나동호 기자

## ‘파업 5일’ 조선대병원 노조 오늘 사후조정

### 오후 4시 전남 지노위 중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로 파업 5일째를 맞은 조선대병원 노사가 사후 조정에 들어간다.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지부(이하 조선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2일 오후 4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 중재로 제1차 사후조정을 한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정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조선대병원의 제안을 통해 노조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전남 지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사후조정에서 2차 조정회의 당시 제시한 기존 요구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병원 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파업 지속 또는 철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선대병원 노사는 임단협 2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임금 인상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임금 25% 인상과 소급 적용,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9월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으며 이후 노사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파업 동참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조합원들도 파업 장기화는 원치 않고 있다”며 “단체협상 내용을 토대로 한 정당한 요구안을 병원 측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파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 5·18부상자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 법원 ‘위법성 여부 소명 안 돼’

내부 경선을 통해 당선된 조규연 5·18만주화운동 부상자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부상자회 회원 2명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부상자회는 회장 선거

를 앞두고 내부 경선을 통해 조규연 회장을 후보로 추도했다. 이를 두고 원고들은 내부 정관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들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위법성 여부를 소명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 5·18 부상자회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체 운영·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 50대 등 3명 입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중학생 B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현금이나 담배 등을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부모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와 2명도 성매매를 한 정황을 확인,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 입건 대상자 여부를 파악 중이며 A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4일 열린다. /안재영 기자

#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 파크골프

무료 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